

[신약 속 미로 찾기 33] “감추인 생명은 영적 신비”

한상원 목사 / 2002 / 페이지 수: 1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3-4)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이란 무슨 뜻인가? 그 뜻을 알기위해 주님과 연합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묻혔다가 부활했음을 믿는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다.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예식뿐 아니라 더 본질적인 뜻이 있다.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에 잠그는 침례였다. 이는 사람이 물속에 잠길 때 옛 자아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갈 2:20)고 했다. 그는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후에 믿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연합되어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엄청난 비밀을 말해준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6)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의 신비성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렇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때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 출처 : 큐티와일대일